

영국산업혁명에 있어서 면공업 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Cotton Industry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최 원 철*

(Choi, Won-Chul)

목 차

- I. 서론
- II. 면공업의 전개
- III. 공장제도 이행
- IV. 면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형성
- V. 자본주의 식민지적 경제형성
- VI. 결론

I. 서 론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 전단계로서 가내수공업(家內手工業)의 과정이었다. 이 수공업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와 같이 축적된 자본으로 비교적 서민계층들에 의해서 수공업을 다방면에 걸쳐서 전개하게 된다.

당시에 생산양식을 배견하면 장인·직인·도제란 생산계층에 의해서 상호간에 두터운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내수공업(家內手工業)을 진전시켜 나간 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비록 소규모적인 소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자본가 이면서 기술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인 장인(匠人)을 중심으로 하는 따뜻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온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가내수공업하에서 면제품생산이 주요품목이었는데 이 면제품 생산이 늘어나고 면공업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인 축적이 더욱 증대 되면서 이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공장제(工場制) 도입의 필요성이 절감되게 된다. 따라서 면공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진전됨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대되면서 공장제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내수공업의 필요성은 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대되고 대중소비제로서 면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공장제도가 도입되어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면공업 분야에서 공장제도가 성립됨으로 인하여 농촌에서는 가내 수공업적인 생산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공동체적인 토지소유도 해체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라던가 대다수의 소농민들은 농촌을 이탈하면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시에서는 여유있게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분해에 의한 도시로의 노동력 집중 현상은 향후에 공장제도하에서의 산업혁명을 진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면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은 환언하면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재 생산양식으로서 공장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자본가와 사용자의 입장이 확연하게 계급적인 관계로 구분되면서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감수하기도 한다(角山榮, 1993, pp 160~161).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본고에서는 산업혁명이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면공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영국산업혁명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면공업의 전개

영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에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그러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약 100년전에 시민혁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봉

건국가를 극복 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河野建二, 1989, pp 190~192).

예를 들면, 영업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던가 길드 통제라는 전근대적인 제도도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또한 시민혁명의 성공에 의한 봉건사회 시대에 귀족이 지배했던 상황에서 상공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되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공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감에 따라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의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탁월한 상업가들이 영국으로 집중되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봉건시대에만 하더라도 수공업이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어서 상품도 비교적 여유있게 생산되고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분업율이 높은 상황에 있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수공업 단계를 벗어나서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영국의 산업혁명 진행과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한가지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점은 영국은 섬나라이면서 최강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 섬나라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통상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인 선박이라던가 해군함대의 강점을 들 수 있겠다. 당시에 영국의 꿈은 세계 각 국과 무역거래를 해 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대량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가 필수조건이었으므로 강력한 함대를 건조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영국은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 크게 파괴된 역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접하게 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타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해상무역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었다. 이러한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서 해상무역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식민지도 확보할 수 있었고 나아가 훌륭한 원료공급기지도 확보해서 영국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을 계속 확대해 갔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여건도 좋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영국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산업은 면공업과 철공업을 들 수 있겠다. 면공업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경공업 분야로서 소자본에 의해서 누구나 사업을 용이하게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산업이었고 면제품은 대중 소비재로서 수요가 계속 증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었다.

철공업도 그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기계공업, 철도산업 등이 계속 발전되어 감으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산업혁명론에서는 면공업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면도 볼 수 있다. 면공업은 철공업에 비하면 경공업이었고 소비재 산업인 반면에 원료도 국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업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파급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혁명 초기에는 면공업이 산업혁명을 주도 한 것 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영국은 면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기 전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모직물(毛織物)공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모직물은 국민적인 산업으로서 전통이 있었다. 예를 들면 1760년에 모직물 수출량은 550만 파운드였는데 반하여 면직물은 20만 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18세기초까지는 순수한 면직물 생산기술은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亞麻)와 직포(織布)만이 생산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질적인 면에서나 가격면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산 면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던 것이 약 반세기 후인 1802년에는 수출면에도 모직물을 압도해서 국민경제의 중심산업으로 급성장 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산업혁명은 원래 국민적인 전통산업으로 칭양받고 있었던 모직물 공업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역사가 가장 짧은 면공업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역시 역사가 짧은 면공업이 기술혁신이 비교적 용이했고 지속적인 수요의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1 면공업의 기술혁신

영국이 면공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은 1760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기술혁신의 도화선이 된 것은 John Kay의 비사(飛梭, fly shuttle)가 1733년에 발명되었고, 하그리브스(James Hargreaves)의 제니 방적기(紡績機)가 1770년에 발명된다. 또한 1769년에는 아크라이트(Richard Arkwright)의 수력방적기(水力紡績機)가 출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1779년에는 크롬프턴(Samuel Crompton)의 뮐(Mule)방적기(紡績機)를 발명하게 된다. 또한 카트라이트(Edmund Cartwright)의 역직기(力織機)였다. 이 역직기 보급으로 인하여 1840년에는 수직기(手織機)가 구축되고 이래서 방직 부문에 있어서의 기계화가 완성된다(荒井政治, 1995, pp 149~151, 金宗炫, 1992, pp.271-272).

이와 같이 짧은 기간내에 급속하게 기술혁신을 이룩하고 영국의 면공업은 명실공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인도의 전통적인 면공업을 압도해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물론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과 인도를 비교할 때에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는 막강한 힘을 앞세워서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인도의 면제품 시장을 점유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2.2 면공업의 비약적인 발전

전술한 바와 같이 면공업은 기술혁신 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나열해 보면, 우선 19세기 전반기에 면공업의 연간 성장률은 평균 5%를 능가하고 있었다. 평균성장율이 5%라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1780~1800년 사이에 면화수입량은 6.5배이고 19세기 전반기에는 경기 변동에 의해서 약간 굴곡이 있었지만 매년 1.5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었던 면을 볼 수 있다(河野建二, 1989, pp 190~192).

한편 면제품의 수출은 18세기말부터 급증해서 19세기초기에 모직물을 대신해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제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면제품 총생산 중에서 수출 비중은 19세기 전반기에는 50~60%로서 외국시장에 의존도는 매년 증대되고 19세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70~80% 수출로 충당되고 있다.

원래 영국의 국내시장은 협소한 것으로서 내수만으로 면공업의 발전을 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량생산이 이루어질수록 광대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원면수입과 면제품 수출도 외국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면공업은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주변의 면공업과 더불어서 맨체스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주도되었다. 이 지방은 한 마디로 보잘 것 없는 시골 지방이었는데 그러나 길드적인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을 이룩해 나감에 있어서 적합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당시에 공업분야를 비롯해서 모험심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 가는 계층들은 전통이 있는 지주라던가 지방명망가 출신들이 아니고 서민출신의 농민이라던가 그 지방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빈곤계층들이 많았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계층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계층들 중에는 다수의 청교도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청교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윤추구를 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들이 기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본금은 친지라던가 친척으로부터 끌어 모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조로서 근면, 절약, 검소를 지침으로 생활했고 투자를 해서 이윤이 발생하면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규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면공업은 소자본가들에 의해서 소규모적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공업화가 진행되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자본이 동원되면서 기업경영의 규모

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 만큼 면공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입증하는 것으로 면공업의 성장에 의한 자본 집중도도 점차 높아져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공장제도 이행

면공업에 의해서 공장제도로 이행되게 된 것은 방적공장(紡績工場)부문이었다. 방적공업분야에서 공장제도가 성립되어서 이 분야 있어서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제가 진전되게 되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현저하게 변화되어 갔던 현상은 생산조직이 변화되어 갔던 점이다.

종래에는 수공업적인 생산조직이 증기력과 인공동력에 의존하게 되는 공장제도(工場制度)란 새로운 생산조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제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가내수공업(家内手工業)생산조직이었고 상업 자본가가 소생산자들에게 원료라던가 생산수단을 미리 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택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규모적인 가내수공업이 전개되는 시대였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공장제도가 탄생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제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角山榮, 1993, pp 115~162). 노동자들로서는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도로 이행해서 공장 근로자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었다. 종래에 가내 수공업제 하에서는 소위 장인·직인·도제라고 하는 생산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계층은 상호간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장인이라는 존재는 자본·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인과 도제에게 기술을 가르키면서 성장시켰고 또한 직인과 도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던가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따뜻한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온정을 베풀고 있었다. 가내의 항상 따뜻한 분위기와 온정주의적인 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공장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가내공업을 떠나게 되면서 도시공장으로 이동되면서 이제는 도시 공장노동자로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장제 하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냉랭한 금전관계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과거의 수공업제하에서 맛보았던 상호간에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갈등이 생기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비록 공장제 하에서는 가내수공업제 하에서보다 임

금은 많으나 엄격하게 감독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유를 크게 제약받는 것이 너무 싫었다. 가내공업제 하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속박됨이 없이 자유롭게 오손도손 상호 협력하면서 생산에 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엄격한 룰(Rule)속에서 또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자유가 속박되는데 대하여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달성을 지상의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의 노동자들이 불만이 잠재되어 있으면서도 면공업에 의한 공장제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겠다.

IV. 면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형성과 전개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공업에서 시작되어서 면공업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면공업이 뒷받침 하에 나중에 철공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면공업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다음 단계로 철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철도산업으로 진전되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축적이 진전이 되고 면공업에 의해서 철공업을 크게 자극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은 면공업과 철공업이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면공업은 세계자본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산업자본이 확대되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자본주의적 재생산 방향이 면공업을 위시해서 철공업, 기계공업과 같은 생산재 생산부문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면공업의 국제적 확대

영국 면공업의 파급 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겠다. 영국의 면공업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 나라는 프랑스, 독일, 미국을 들 수 있겠다(小林良彰, 1990, pp 196~199).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홍수와 같이 솟아지는 영국의 면제품을 억제하고 아직은 유치단계에 있는 이들 나라들의 면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장벽을 쌓아 올렸다.

물론 그러한 관세장벽은 각국에 의해서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19세기 전반기에 유럽제국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중상주의적인 보호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엄격한 고 관세와 수입제한에 의해서 영국 면제품유입을 저지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었던 나라는 프랑스였다.

당시에 나폴레옹은 전후에 1834년까지 어떤 종류의 면사 직물이라고 하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독일은 국가적인 통일이 늦어지면서 보호체제는 약했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도 고관세에 의해서 영국 면제품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국의 막강한 정치·경제·국방력에 압도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각국의 고 관세 장벽을 뚫으면서 영국 면제품이 각국으로 진입되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각국은 고 관세를 설정하고 막아보려고 전력을 다해 봤지만 대세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역으로 영국의 면공업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국이 되어서 이러한 충격을 감내하면서 오히려 면공업 분야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면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제품들이 몰밀 듯이 밀려왔을 때에 그 충격을 감내하지 못해서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충격을 극복해서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공업발전을 이룩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인도의 경우를 들 수 있고 후자는 이들 나라들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자립적인 국민경제 형성을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탁월한 최신기술을 도입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영국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한편 영국도 처음에는 언제까지나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나라로 기술이전이 안되도록 기술자들의 출국을 통제하고 해외 이주도 통제해 갔던 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대세의 흐름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술 또는 기술자들이 해외 유출을 막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영국도 1825년에 증기기관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인정하고 1843년에는 전면적으로 기계수출의 자유화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럽 각국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경제자립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중엽으로 들어와서는 각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특히 프랑스와 미국은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들 나라들은 이때에 와서는 면공업면에서 영국에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 서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V. 자본주의 식민지적 경제형성

당시에는 영국의 면공업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면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

출되면서 타국의 시장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면공업에 편입시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를 들면, 1830년대에 영국의 면제품이 브라질로 홍수와 같이 유입됨으로 인하여 아직도 유치단계에 있었던 브라질 수공업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나스 게이라 지방에서의 특산면포도 1862년경까지 영국의 면포와 경쟁에 패배함으로써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면공업의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해버린 브라질 경제는 외국인을 위한 원료와 면화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그들이 만든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종속적인 경제로 전락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영국의 면공업 자본에 의해서 무리하게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인도의 경우에는 더욱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면공업국임을 자랑하던 인도가 영국이 반강압적으로 인도시장으로 진출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혹한 수단이 동원되었던 면을 볼 수 있다. 영국의 중상주의적인 관세정책이라던가 영국 면제품을 무리하게 인도인들에게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군사적,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인도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1830년 이후에는 영국의 면포가 인도로 물밀 듯이 솟아지면서 인도의 면공업이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수단과 생활기반을 상실해버린 인도의 직포공들은 일자리를 상실하면서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참담함이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면공업제품의 인도진출은 경쟁관계에 있었던 인도 면공업을 붕괴시키고 영국 면제품의 인도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할 수 있었던 것이다(長岡新吉, 1992, pp 155~158).

그런데 영국의 면제품은 브라질, 인도뿐만이 아니었다. 1839년부터 1842년 사이에, 1856-58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편전쟁을 치루면서 중국이 사실상 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인하여 중국의 문호개방을 이끌어 냈고, 1858년에는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시아로 계속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국제분업적인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해외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강한 군사적 무기를 앞세워서 후진국으로 진출을 시도해 가면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재편성 과정에서 종속적인 식민지 지위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저개발국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후진국 경제에 타격을 가해 나가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브라질과 인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의 탁월한 공업제품 유입으로 인해서 후진국의 재래산업이 무너져 가게 되고 선진국을 위한 상품생산기지, 판매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진국들은 전통적인 정치 경제제도의 왜곡된 방향으로 변혁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소농민 경제가 붕괴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차후에 영국의 공장제도의 확립은 후진국들이 수공업적 가내 공업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농민들로부터 생산수단과 토지를 박탈함으로써 인하여 농민들이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VI. 결 론

영국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면공업 발전에 주목하여 중점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산업혁명의 이전단계라던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면공업이 수행한 역할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자연발생적으로 각계 각층으로부터 면공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본원적인 축적이 가능해졌고 면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면공업이란 것은 누구든 간에 소규모의 자본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경영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밝혔다시피 영국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달성은 면공업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장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 지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확대에 부응해 갈 수 있었던 방향으로 진전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비록 면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철공업의 진전에 따라서 산업혁명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면제품이 대량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었던 면을 볼 수 있다. 대량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장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가내수공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던 계층들이 수공업 및 농민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본인들이 의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이란 과거의 수공업 단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갈등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면도 볼 수 있었다.

수공업제 하에서보다는 전체적으로 임금은 상승되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는 어디까지나 급진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노동자의 지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생산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직시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영국 면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영국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브라질과 인도에 반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영국 면제품이 이들 시장에 진출로 인해서 국내시장이 교란되고 몰락해 가면서 영국시장에 종속되어가는 상황도 직시 할 수가 있었다. 후진국은 영국면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전략해 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면공업의 발전은 후진국들의 희생위에 성취되어 갔던 측면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原輝史, (1997), 現代 Europe 經濟史, 有斐閣.
 長岡新吉, (1992), 一般經濟史, ミネルヴァ書房.
 河野建二, (1989), 西洋經濟史, 岩波全書.
 荒井政治, (1995), 概說西洋經濟史, 有斐閣選集.
 角山榮, (1995), 一般經濟史, 青林書院新社.
 小林良彰, (1990), 經濟史入門, 實教.
 金宗炫, (1988), 近代經濟史, 經文社.
 中川敬一郎, (1951), イギリス綿業における工場制度と確立, 經濟學論集 第20卷.
 吉岡昭彦, (1975), インドとイギリス, 岩波新書.
 A. Redford, (1953),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1760~1860.*
 F. Collier, (1964), *The family Economy of the working classes in the cotton industry.*
 G. H. Wood, (1910), *The History of wages in the Cotton Trade during the Post Hundred Years.*
 Hartwell, R. M. (1967), *The caus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London.*
 P. Mantous, (1955),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S. J. Chapman, (1994), *The lancashire Cotton Industry.*
 T. S. Ashton, (1960),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W. C. Taylor, (1970), *Notes of a tour in the manufacturing districts of lancashire.*